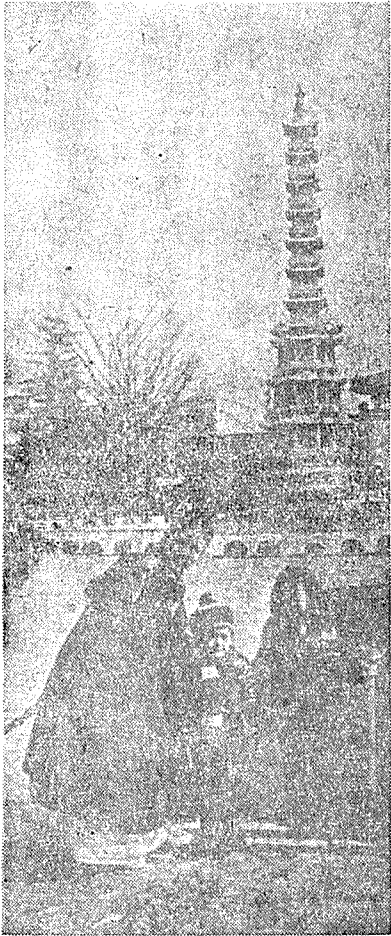


## 둘 낳기 운동이란?



**【문 1】** 가족계획이란 무조건 애기를 낳지 말라는 거라면서요? 어떻게 애기를 안 낳고 살지요?

**【답】**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가족계획은 결코 애기를 낳지 말라는 산아제한이 아닙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한 가정의 행복, 즉 경제적 사정, 가족의 건강, 자녀의 양육 문제를 고려하여 적당한 터울로 두명의 자녀만을 두어 잘 살아 보자는 생활 운동이 곧 가족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기를 갖지 못한 불행한 가정을 도와 임신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도 가족계획사업의 한 방법입니다.

**【문 2】** 하지만 가족계획의 목적은 국가의 인구정책이나 경제정책에 치중되어 있다면서요?

**【답】** 물론 국가의 발전과 가족계획 실

친은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 만큼의 자녀를 낳고 싶을 때에 낳도록하자」는 것이 가족계획의 근본 이념이므로 어디까지나 궁극적 의미는 각 가정의 행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계획은 국민 각자의 생활향상, 즉 기왕이면 머리 좋고 튼튼한 자녀를 두어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지,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개인의 가정과 행복을 희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 3】 가족계획을 실천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가족계획의 방법이라 하면 언뜻 우리는 피임 방법으로 혼돈하기 쉬운데 이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피임방법이란 가족계획을 완전히 설계하고 난 후에 비로소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계획의 방법은 곧 가정의 설계라고도 할수 있지요. 대한가족계획협회가 현재 권장하고 있는 것은 「2·2·30」입니다. 이 숫자는 「딸, 아들 구별없이 2명의 자녀를 2살 터울로, 어머니 나이 30세 이전에 낳자는 뜻입니다.

이 「돌내기 운동」을 기본 계획으로



하여 자녀양육, 교육, 경제면의 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문 4】 그럼 가족계획은 결혼 전부터 해야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아이가 들이니까 이제 가족계획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죠. 가족계획은 이상적인 가족수 유지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어떠한 사람과 어떻게, 언제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부터가 곧 「가족계



획」이라 하겠읍니다. 다음 열거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 가는데 꼭 해야 할 계획 조건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① 첫 애기의 임신과 출산시기. ② 아이들의 터울. ③ 자녀 수의 결정. ④ 경제적 뒷 받침의 방법. ⑤ 단산의 시기. ⑥ 양육 및 교육의 계획. ⑦ 노후문제.

**【문 5】 훌륭한 결혼을 하도록 하는 것도 가족계획사업의 하나라면 좋은 상대를 고르는 비결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답】** 그것은 배우자가 될 상대가 얼마나 자신과 닮은 데가 많은가를 미

리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는 성격적용성이 비슷하며 이혼하는 부부는 반대로 서로 닮은 곳이 별로 없읍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① 자라온 환경이 비슷해야 하고, ② 기질(氣質)이 같아야 하며, ③ 취미 흥미 욕망의 근사, ④ 공통의 관심. ⑤ 사상이 비슷하며, ⑥ 믿는 종교가 같고, ⑦ 같은 정도의 지성(知性), ⑧ 가치관이나 이상(理想)이 비슷해야 합니다.

**【문 6】 전 32세의 기혼녀인데 가족계획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실은 결혼생활 8년째 인데도 아직까지 성(性)의 기쁨은 모르고 있어요.**

**【답】** 웬걸요. 부부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가족계획입니다. 당신의 성불감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 불감증이란 육체적인 병이 아닙니다. 일종의 정신 자세라 할까요? 그 정신자세는 남편과의 사이에 세심하고 보다 용기있는 협력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치료되기 마련입니다. 성(性)을 위한 무드 조성 즉 「사랑이란 전 감각을 접촉하고 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몸 곁에서 느끼는 쾌감

이라고 말한 스탕달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확고한 사실입니다. 무드 조성을 위한 행위란 바로 애무(愛撫) 혹은 친희(前戯)가 아닙니까. 그것은 오관을 통한 애무행위라 할 수 있는데 오관은 ① 시각. ② 청각. ③ 후각. ④ 미각. ⑤ 촉각입니다. 성(性)은 오관의 전부(全部)가 참가하는 교향악이고 좀더 멋있고 아름다운 음률을 위해서는 오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서로의 협력입니다. 서로의 협력이 뭐냐구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입술, 귀, 목, 젖가슴, 허벅지 등 남녀의 성감대를 충분히 접

촉한 후에 비로소 성교를 시작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방법대로만 한다면 당신의 불감증은 오늘 밤 당장에 치료될 것입니다.

【문 7】 자녀 수와 성생활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성을 즐긴다는 것은 인간의 아름다운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원하는 때에 성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한다는 것은 보다 즐겁고 자신만만한 삶을 영위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부부들의 약 65



퍼센트가 자유로운 생활을 갖지 못하는 큰 이유는 좁은 주택에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눈 때문에 늘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문 8】** 들날기 운동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수 없습니까?

**【답】** 들날기 운동은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터 10년전인 50년대 후반기만 해도 3.0%라는 놀라운 증가를 보였는데 그것은 약 70만명의 인구가 해마다 는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줄어 들어서 2.0%이지만 일본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후진국의 증가율인 셈입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잘 살수 있는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증가율을 적어도 1.0%의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겠습니다.

**【문 9】** 다른 나라에도 들 날기 운동을 하고 있나요.

**【답】** 하고있다 뿐입니까? 일본의 경우는 벌써 50년전에 이 운동이 전개 되었으며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런 운동은 벌이지 않아도 옛날부터 국민 자자가 한명내지 두명만 잘 낳아 길렀으므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게 아닙니까?

현재우리나라 평균자녀 수를 보면 4.5명인데 비해 선진국들은 한결같이 한명내지 두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미국의 평균 자녀수는 2명 스웨덴은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 10】** 두명의 자녀가 알맞다는 과학적인 근거라도 있나요?

**【답】** 있습니다. 우선 자녀가 2명일 때 부모의 애정을 적당히 분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애정의 과잉으로 독립심 없는 무능한 아이를 만든다거나 애정의 결핍현상으로 비틀어진 성격의 소유자로 만들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의 편애(偏愛)없이 위의 여러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자상한 보살핌을 주는 데는 이제까지의 많은 조사에서 두 자녀가 가장 알맞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둘째로 부모들의 여가선용과 생활

경제의 향상을 위해 두 자녀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일생을 낳아야 하는 피로움과 길러야 하는 눈물로 보내기가 일쑤였습니다. 한 가정의 가정부에 지나지 않았던 여성도 남편과의 격차를 좁혀 완전한 사회인으로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 11】** 어머니 나이 30세 이전에 단산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답】**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은 때는 30세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전성기인 24세—30세 늦어도 35세 이전에 고통 스런 분만을 다 끝내 버린다면 그후에 오는 것은 왕성한 건강과 행복뿐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건강도 마찬가지 랍니다.

건강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도 그렇습니다. 막내를 30이전에 낳아야 부모가 60세 이전에 대학교육까지 끝낼수 있지만 40전후에 탄산한다면 양육의 책임을 져야하는 부모가 생활경제 등의 능력은 잃어 가므로 결국 막내 아이는 사회의 불구자가 되는 셈입니다.

**【문 12】** 딸이건 아들이건 구별하지 말라지만 가령 딸만 2명일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답】** 옛날에는 남자만이 벼슬을 할수 있었고 남자라야 가문을 계승하고 남자가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하여 여자도 남자와 같이 벼슬도 하고 가문을 상속할 수도 있고 친정 부모를 모실수도 있습니다.

요즈음, 딸이 각각 친정 부모를 모시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식이라면 딸도 자식입니다. 아들은 공부를 시키면서 딸자식은 공부를 안시키는 등의 인간 차별은 최악에 가까운 행위이며 아들 한명을 갖기 위해 출산을 계속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최악 행위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사회 단체에서 딸도 아들처럼 법률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기 위한 법개정 운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즉 ① 호주상속 순위에서의 남녀 차별. ② 재산상속에서의 남녀 차별. ③ 친족범위 결정에의 남녀 차별. ④ 계모자 관계의 인정. ⑤ 사후 양자 위가양자 제도등 여성위주의 법률 개혁이 그것입니다.

**【문 13】** 들만 낳으면 가정이 윤택해 진다는 구체적인 통계라도 있습니까.

**【답】** 물론 있습니다. 저명한 경제학

자들이 수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 한 사람을 25세 까지 기르는데 양육비가 6 백만원이라는 거액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약간 이상합니다만 가령 다섯명의 자녀를 둘로 줄인다면 1천 8 백만원이라는 거액을 벌게 되는 셈이며 그 돈으로 남은 두 자녀를 누구보다 훌륭하게 기를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문 14】** 누구나 다 둘만 낳으면 인구가 줄어 들지 않을까요?

**【답】**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 그 문제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획기적인 의약품 발명과 의술의 발달로 인해 갈수록 사망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둘 낳기 운동」이 순조롭게 이뤄져 1981년에 인구증가율 1.3%가 된다 하여도 그때 우리나라 인구 밀도는 세계최고가 될겁니다.

**【문 15】** 그렇지만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면 군사력이나 노동력이 감소 될게 아닙니까?

**【답】** 천만에요. 그건 아주 틀린 생

각입니다. 내일부터 단 1명의 자녀도 출산 되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20년간은 군사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출생해 있는 1살부터 20세까지 자녀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력도 과학의 발달에 의한 고도의 기술습득과 개인당 생산성의 향상 등 전면적인 기계화 시대가 오게 됨으로 그런 우려감은 갖지 않아도 됩니다.

**【문 16】** 그러나 아이들이 들이면 외롭지 않을까요? 어머니도 심심해 할꺼구요.

**【답】** 그건 어디까지나 어른들 쪽의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스스로가 독립해서 살아 가기가 너무나 벅찼기 때문에 이웃이나 국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가정 안의 여유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가가 발전 되어야하고 직장이 안정 되어야 하며 경쟁이 편은해야 비로소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둘 낳기 운동」입니다.